"한 경기 이상의 가치가 있다"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 오늘 열릴 요코하마와 AFC 조별리그 2차전 관련

전북현대 김상식 감독(사진 왼쪽)과 김진수.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첫 승에 도전하는 프로축구 전북 현대 김상식 감독이 요코하마 F.마리노스와의 경기가 1경기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전북은 19일 오후 11시 베트남 호치민의 통낫 스타디움에서 요코하마와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을 치른다.

전북은 지난 16일 시드니FC(호주)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득점 없이 0-0으로 비겼다. 반면 요코하마는 호앙아인 잘라이(베트남)을 2-1로 이겼다.

김 감독은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1차전 시드니와 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요코하마와의 경기가 조별리그 통과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전북과 일본을 대표하는 요코하마의 경기는 한 경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이 대회에서 요코하마를 만나 승리하지 못했는데, 그 경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정신 무장을 잘해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년 챔피언스리그에서 전북은 요코하마와 조별리그에서 만나 두 차례 맞대결을 모두 졌다.

홈에서 치른 첫 대결은 1-2로 패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중립 지역인 카타르에서 치른 두 번째 경기는 1-4로 완패했다. 당시 김 감독은 전북의 코치였다.

1차전 시드니와 경기에서 현지 날씨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김 감독은 "당시엔 베트남에 입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른 첫 경기였다. 입국 후 날씨 영향으로 훈련이 취소되기도 했고, 몇몇 선수들은 자가격리를 거쳤다. 이제는 선수들이 현지 환경에 조금 적응한 것 같다. 첫 경기보단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모든 팀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기에 정신적인 부분에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트피스에 강한 모습을 보이는 요코하마에 대해선 "평소 세트피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훈련해왔다"며 "요코하마의 1차전 득점과 실점이 모두 세트피스에서 나왔는데, 분석관과 비디오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맨투맨과 지역 방어 등 상황에 맞게 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수비수 김진수는 "1차전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선수들 모두 더운 날씨에 최선을 다했다. 현지에 적응한 만큼 요코하마전은 더 나은 경기력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공희용, 또다시 정상 올라

코리아마스터즈 월드투어 슈퍼 300서 김소영과 콤비, 여자복식서 1위 차지

전북 배드민턴 간판인 공희용(전북은행)이 또다시 정상에 섰다.

18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광주에서 열린 '2022 코리아마스터즈 월드투어 슈퍼 300' 대회에서 공희용은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과 짝을 이룬 여자복식에서 정상에 올랐다.

공희용은 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랭킹포인트와 상금을 수확했다.

여자복식 세계랭킹 3위인 공희용-김소영은 결승에서 백하나(MG새마을금고)-이유림(삼성생명)을 2대0으로 이겼다.

한편 공희용은 지난해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거는 등 최고의 기량을 뽐내며 각종 대회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김효성 감독은 "올림픽 이후에도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며 "부상만 조심하면 남은 대회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이선기, 아시안게임 태권도 국가대표 확정

전북 출신으로서는 최초

전주시청 태권도팀 이선기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18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파견 국가대표 선발 3차 평가전에서 이선기가 국가대표로 확정됐다.

전북 출신 태권도 선수가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은 최초다.

80kg 초과급에 나선 이선기는 4차 평가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국가대표가 됐다.

1차 평가전 우승자인 이선기는 2차 평가전 1위 인교돈(한국가스공사)과 3차 평가전 1위인 변길영(삼성에스원)과 재경기를 벌이면서 최종 승자가 됐다.

한편 삼례초와 삼례중, 영생고, 경희대를 졸업하고 전주시청 태권도팀에 입단한 이선기는 순발력이 뛰어나고 공격 타이밍이 빠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87kg급이었던 이선기는 체급이 없어진 뒤 80kg 초과급으로 바뀌면서 체력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쟁쟁한 선수들을 물리치게 됐다.

맹성재 감독은 "전북 태권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것"이라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케이타 · 양효진, V-리그 최고의 선수로 '우뚝'

도드람 V-리그 시상식서 박승수 · 이윤정, 신인상

KB손해보험의 외국인 선수 케이타와 현대건설의 양효진이 '도드람 2021~2022시즌 V-리그' MVP에 등극했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8일 오후 서울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에서 시상식을 개최했다.

케이타와 양효진은 이번 시즌 남녀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로 MVP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케이타는 31표 중 23표를 획득해 7표를 받은 곽승석(대한항공)을 제치고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섰다.

엄청난 득점력을 뽐낸 케이타는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평가받았다. 이번 시즌 1285점을 기록해 역대 한 시즌 최다득점 기록을 갈아치웠고, KB손해보험을 사상 첫 정규리그 2위로 이끈 후 챔피언결정전 무대까지 올려놨다. 챔피언결정전에서 아쉽게 우승컵을 들어올지 못했지만, 케이타의 활약은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득점 1위에 오른 케이타는 공격종합, 서브, 퀵오픈 등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공격지표 모든 부문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건설의 센터 양효진은 팀의 중심을 잡아주며 정규리그 1위에 기여했다. 31경기에 출전해 502점을 올렸다. 블로킹, 속공, 오픈공격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양효진은 31표 중 28표를 받는 등 압도적인 득표율을 자랑했다.

여자부는 코로나19 여파로 리그가 조기에 종료됐고, 현대건설은 리그 1위 자격만 차지하게 됐다. 여자부는 포스트시즌이 열리지 않았다.

OK금융그룹의 레프트 박승수와 한국도로공사의 세터 이윤정은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실업팀 출신인 이윤정은 만 25세의 나이로 역대 최고령 신인상을 받았다.

케이타는 베스트7 라이트 부문도 수상해 두 배의 기쁨도 누렸다.

나경복(우리카드)과 레오(OK금융그룹)는 최고의 레프트 선수에 선정됐고, 신영석(한국전력)과 최민호(현대캐피탈)는 베스트 센터에 뽑혔다.

황택의(KB손해보험)는 세터 부문, 박경민(현대캐피탈)은 리베로 부문에서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여자부 베스트7도 발표됐다. 라이트 부문은 GS칼텍스의 외국인 선수 모마가 차지했고, 박정아(한국도로공사)와 강소휘(GS칼텍스)는 베스트 레프트로 뽑혔다. 현대건설의 신구 센터 이다현과 양효진은 나란히 베스트7에 이름을 올렸고, 김다인(현대건설)은 최고의 세터로 이름을 올렸다. 임명옥(한국도로공사)은 최고의 리베로에 선정됐다.

대한항공을 2시즌 연속 통합 우승으로 이끈 토미 틸리카이넨 감독은 남자부 감독상을 받았고, 현대건설을 리그 1위로 이끈 강성형 감독은 여자부 감독상을 수상했다.

최고의 매너를 보여준 구단에게 주어지는 페어플레이상은 현대캐피탈과 막내 구단 페퍼저축은행이 받았다.

한편 심판상도 발표됐다. 주·부심 부문에서 남영수 심판이, 선심 부문에서는 곽미정 심판이 영예를 안았다. /뉴시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